제11.4호

행정명령

뉴욕주 비상 사태 선포

뉴욕은 하루 100명 이상의 신규 입원률이 유지되는 등 코로나19 전염을 지속적으로 경험하고 있기 **때문에,**

오미크론이라고 알려진 새로운 SARS-CoV-2 변이 바이러스가 세계보건기구와 질병통제예방센터에 의해 확인되고 전염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, 최적의 보호를 위해 사람들이 백신을 추가로 복용해야 하기 **때문에,**

주 정부는 주 전체의 병원 수용력이 지역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정된 접근법을 추구해야 하기 **때문에,**

주 정부는 코로나19에 대한 예방접종 및 테스트를 용이하게 하고 시행하며 바이러스가 이러한 속도로 계속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각 시군에 지원해야 하기 **때문에,**

이에 따라 본인 Kathy Hochul 뉴욕주 주지사는 뉴욕주 헌법 및 뉴욕주 법률이 본인에게 부여한 권한에 의거, 행정명령 11호에 명시된 주 재난 비상 사태를 지속하고 2022년 4월 15일까지 행정 명령 11호, 11.1호, 11.2호 및 11.3호에 포함된 법률의 정지 및 수정을 계속합니다.

2022년 3월 16일 올버니시에서 본인이 서명하고 주 정부 관인을 날인하여 선포합니다.

주지사

주지사 비서